

이태원참사 이후 이태원 거리 방문 해도되는걸까?

202210148 조민혁

1. 서론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한달이 되었다. 사망 158명, 부상 197명 이나 나온 말 그대로 참사였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2020 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 3 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10 월 30 일부터 11 월 5 일 밤 24 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서울 도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502 명이 사망했던 1995 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피해였다.

이후 추모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 본론 1

과연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을 방문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고싶다.

방문하는 것은 자유이며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물론 방문해서 조롱하거나 장난으로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 하지만 추모를 하기위해 방문하는것이나 이태원을 놀러가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비판 받을일이 아니며 추모를 위해 방문하는 것은 칭찬받아야할 일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가량이 흘렀지만 이태원 거리는 여전히 무거운 적막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참사의 현장, 슬픔과 애도의 거리를 위로와 기억의 거리로 바꾸려는 시민과 상인들이 늘고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면서 미약하게나마 이태원 거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 상인들은 추모를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 한달여가 지나고 대로변 가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지만, 현장 근처엔 문을 닫은 가게들도 적지 않았다. 아예 내부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문을 연 가게 역시 매출은 바닥을 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의 매출은 참사 이전(10 월 4 짜주)과 비교하면 11 월 2 짜주에 최대 60% 이상 줄어들었다.

“함께 하고 잊지 않겠다...‘일부러’ 이태원에 왔습니다” [“함께 하고 잊지 않겠다...‘일부러’ 이태원에 왔습니다” \(edaily.co.kr\)](https://www.edaily.co.kr)

상인들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추모를 겸해 이태원을 찾으려는 시민들도 나왔다. 이들은 이태원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도 있는 만큼 끔찍한 참사의 공간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문을 통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이태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근처 상인들이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히려 방문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모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주변 상권들이 죽어가고있으며 상인들이 힘들어지고있다.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태원에서 1년 반요 멕시코 음식점을 운영해온 C씨는 “국가 애도기간인 지난 5일 이후에도 열흘 가까이 영업을 쉬었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많은 생각에 혼자 시달리곤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이 곳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찾아주는 이들이 있을 때마다 희망을 느끼고 힘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C씨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이태원파출소 경찰 등에 직접 만든 타코 등을 전달하며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약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태원 일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용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지원한다.

나는 이 글을 보는 모두가 방문하여 상권살리기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모를 이제 그만해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공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다.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강제철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구청은 추모공간에 놓인 국화메모지음료 등을 치워달라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에 “추모 인파가 줄고 자연스럽게 추모공간이 축소되어 종료될 때까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모두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굳이 항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도 추모가 길어지면서

다른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추모장소가 어떤 피해를 줬으며 어떤 불편함을 안겨 줬는지 이해할수없다. 물론 언제까지 이태원 방문을 피하려하고 언제까지 언급을 안할순없다.

유일하게 남은 참사 추모공간 '이태원역 1번출구' 유지한다

[유일하게 남은 참사 추모공간 '이태원역 1번출구' 유지한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http://hani.co.kr)

4. 결론

나는 이태원 방문을 적극 찬성한다. 방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방문한다고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을 방문해서 상권도 살리고 추모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